


## 보 도 참 고 자 료

배포시부터 보도 가능

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/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				
책 임 자	안창국 과장 (2156-9890) 서중균 사무국장 (787-3931)	담 당 자	고선영 사무관(2156-9899)		
배 포 일	2015. 8. 12(수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5매 (별첨제외)	

### 제 목 : 성장사다리펀드 2년간 운영성과 및 3차년도 출자사업 계획

#### 1. 개 요

- '15.8.12일 성장사다리펀드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와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그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, 3차년도 출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

##### < 행사 개요 >

- 일 시 : '15.8.12(수) 10:30~11:10
- 장 소 :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.Camp(서울 역삼동 소재)
- 참 석 :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, 성장사다리 펀드 자문위원\* 등  
\* 민간위원 4명, 산업은행·기업은행 부행장,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상임이사
- 내 용 : 성장사다리펀드 2차년도 사업성과 및 3차년도 출자사업 계획 발표

- 설명회 이후 “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”를 개최하여 기술가치평가 투자 과정에서 기술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참여자(출자은행, 운용사)간 투·융자 복합금융 활성화 등 협력방안 논의

#### 2. 그간의 운영 성과

- (자금조달) 성장사다리펀드는 2차년도까지 총 1.2조원을 출자하여 4.4조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하였으며, 당초 목표(연간 2조원)를 초과 달성
- 기업 성장단계별로 총 48개 펀드를 결성(또는 결성중)하여 은행 및 연금·공제회 중심의 민간자금 3.2조원을 매칭 (별첨1, 1p참조)

##### < 하위펀드 결성 및 자금모집 현황 >

(단위 : 개, 억원)

구 분	펀드 수	결성완료 펀드	성장사다리 출자금액(a)	매칭자금 모집금액(b)	펀드 조성 규모(a+b)
1차년도	29	29	6,085	21,766	27,851
2차년도	19	8	5,500	10,451	15,951
소 계	48	37	11,585	32,217	43,802

- ※ 3차년도에 성장사다리펀드가 6천억원을 출자하여 펀드를 1.6조원 이상 결성될 경우 당초 계획대로 총 6조원 규모의 하위펀드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 가능

- (자금공급) '15.7월말 현재 총 262개 기업에 총 1조 157억원 투자를 집행하여 실질적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(별첨1, 1p참조)
- 투자기업의 92.0%가 중소기업(전수 기준)이며, 그 중 설립 7년 이하 초기기업이 60.7%로 초기·중소기업 위주로 투자 집행중
- 투자집행률은 36.4%로 결성시기 및 투자기간경과율(27.1%)을 감안할 때 투자는 순조롭게 진행중이며, '15년말 누적투자액은 당초 예상치(8,841억원)를 크게 상회하는 1.3조원 이상으로 전망
- 특히, 2차년도에 진행한 펀드결성이 마무리되는 '15년말부터 투자 집행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

### 3.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개선 과제 (설문조사 결과 : ☞별첨3 참조)

#### < 성장사다리펀드 설문조사 개요 >

- 목 적 : 성장사다리펀드 사업에 대한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, 향후 운용전략 수립시 활용
- 기 간 : 2015. 6. 29 ~ 7. 24
- 대 상 : 중소·중견기업, 운용사, 출자기관 등
- 내 용
  - ① 중소·중견기업 : 성장사다리펀드 인지도, 투자 수요, 투자유치시 애로사항
  - ② 운용사 : 성장사다리펀드 운영성과, 펀드 및 투자 수요, 시장 환경
  - ③ 출자기관 : 펀드출자 관련 시장 환경, 성장사다리펀드 관련 평가

#### ① 긍정적 측면

- ① 성장사다리펀드가 시장실패 영역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으로서 중·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민간출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
  - 성장사다리펀드는 코넥스, 재기지원, IP, 기술금융 등 민간자금만으로는 펀드결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인 출자자로 참여
- ② 국내 VC·PE 관련 경직적 규제 및 투자관행을 발굴·개선하여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펀드를 출시
  - 관행적으로 요구해오던 높은 GP출자금 및 우선손실충당을 폐지
  - 투자대상과 무관하게 요구해온 8% 수준의 높은 기준수익률을 개선하여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은 기준수익률을 하향 적용
- ③ 운용인력 중심의 평가와 신생 운용사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건강한 투자생태계를 조성
  - 운용사 선정시 업력·규모·재무안정성 등 정량적인 평가비중을 낮추는 대신 운용인력 및 전략 중심의 정성적인 평가비중을 확대하고, 산업계 인력 등을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
  - 신생 운용사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“루키리그”를 도입

#### ② 미흡한 측면

- 중소벤처 기업들은 성장사다리펀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성장사다리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어렵다고 평가
- 초기 창업기업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자금조달 문턱이 높다는 인식

### 4. 3차년도 운영계획

#### ① 자금조성 계획 : 6천억원을 출자하여 총 1.6조원 규모 조성

- 성장사다리펀드 설립시(‘13.5) 계획했던 3년간 6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달성 예상(2차년도까지 4.4조원 및 3차년도 1.6조원 조성)
- 출자분야는 기존의 펀드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와 정책 목표를 감안하여 수립 (☞별첨1, P참조)
  - (신규) 시장의 실패영역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로서 적극 참여
    - 1) 초기기업 Follow-on 투자펀드 : 초기투자를 받은 기업 중 추가투자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(성장사다리펀드 1,000억원 출자)
    - 2) LP지분 유동화펀드 : 민간출자자 지분에 대한 거래시장 조성 목적의 펀드(성장사다리펀드 700억원 출자)
  - (계속) 스타트업, M&A, 해외진출 지원 등 시장의 평가가 좋고, 지속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운용사 선정방식 등을 일부 개선\*하여 추진

\* 운용사 선정시, 운용 전문성 및 출자자 사전협회가 필요한 분야에는 일괄공모 방식이 아닌 시장제안방식을 도입하여 시장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

#### < 성장사다리 3차년도 하위펀드 조성 계획 (단위:억원) >

구분	출자분야		펀드수	공고시기	성장사다리 출자금액	펀드 조성규모
창업	초기기업 Follow-on		4~6	'16.2월	1,000	2,000
	스타트업(원원) <sup>1)</sup>		1	'15.9월	150	500
	스타트업(중액) <sup>2)</sup>		-	-	350	700
성장	M&A	3차	2~4	'16.4월	1,500	4,500
	해외진출	2차	3~5	수 시 <sup>3)</sup>	1,000	3,300
	기술기업		1~2	수 시 <sup>3)</sup>	350	1,000
회 수 · 재도전	세컨더리	2차	2~3	'15.11월	700	1,500
	재기지원	3차	2~3	수 시 <sup>3)</sup>	700	2,000
	코넥스	2차	1	'15.11월	250	500
합 계					6,000	16,000

1) 해외선도기업과 1:1 매칭출자 협의중으로 공동으로 펀드조성 계획

2) 기초성 스타트업 펀드의 후속투자를 위한 펀드 중액 재원

3) 수시공고(해외진출, 재기지원 등)의 경우 시장제안방식으로 진행할 계획

## ② 모험자본으로서 역할 강화와 인지도 제고 노력 추진

- 민간자금의 출자자(LP) 참여 유도를 위해 기존의 중·후순위방식 이외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
  - 성장사다리펀드의 초과수익을 민간출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또는 민간출자자의 출자스케줄을 조정하여 민간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
- 기업의 인지도 및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등을 통해 지방 순회 설명회 개최,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다각도의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

[별첨 1] 성장사다리펀드 2차년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

[별첨 2] 3차년도 사업계획 설명회 자료

[별첨 3]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[요약]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려겠습니다